

오피니언

다산포럼

김정남



지난 달 20일, 법무부가 교도소 수형자들이 외부에 편지를 보낼 때 봉투를 열어 둔 채 교도소 당국에 제출하게 하는 이른바 서신검열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한다.

이는 지난 2월, 현법재판소가 감옥에서의 서신검열제도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만시지탄이 있는데도 일부 예외규정을 두고 있기는 하지만, 서신검열제도의 폐지는 일단 쌍수를 들어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일제 강점기인 1912년 조선총독부의 '조선감옥령 시행규칙'으로부터 시작된 서신검열제도는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에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로 승계되어 그대로 존속되어 왔다. 이후 이승만 독재와 박정희·전두환의 30여 년에 걸친 군사독재기간에는 증거인멸, 범죄교사 등의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계속 유지되어 왔던 것이다.

감옥에서 서신검열을 거치지 않고 교도관 등을 통하여 비밀리에, 밖으로 편지를 내보내는 것을 가리켜 감옥 안의 은어(隱語)로 '비둘기 날린다'고 말한다. 1975년 김지하의 양심선언이 비둘기를 통하여 작성, 반출되었고 1987년 영등포 교도소에서 이부영이 내게 보낸 '박종철 고문처사 사건의 범인이 조작되었다'는 내용의 편지 역시 비둘기였다. 비둘기의 작성과 그 날리

감옥으로부터의 편지

는 방법은 사람에 따라 천차만별이었다.

그러나 서신검열을 통해 나온 감옥으로부터의 편지 가운데 주목같은 글들이 많다. 신영복의 '감옥으로부터의 사색', 정수일의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다', 김대중의 '옥중서신', 서준식의 '옥중서간집' 등이 바로 그것이다. 언제 다시 읽어도 항상 새롭고 깊은 울림을 주는 글들이다. 독서의 계절이라는 이 가을에 특히 권하고 싶은 책들이다.

1988년 여름, 나는 감옥에 있는 신영복이 그의 가족들에게 보낸 봉함엽서로 된 편지 봉투를 받아 보았다. 아버님, 어머니, 형수님, 계수씨, 그리고 더러운 조카들에게 보낸 글들이었다. 그 편지에는 정정

적 우정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형벌 중의 형벌입니다. 자기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미워한다는 사실, 자기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미워받는다는 사실은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더욱 이 그 미움의 원인이 자신의 고의적인 소행에서 유연된 것이 아니고, 자신의 존재 그 자체 때문이라는 사실은 그 불행을 매우 질망적인 것으로 만듭니다."(감옥으로부터의 사색'에서)

정수일은 옥중편지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옥살이란 막히고 닫힌 세상에서 다람쥐 청바지 둘 둘 하는 단조롭고 호젓한 일상의 반복이지만, 살다 보면 옥 담 너머의

사람들, 특히 가까운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거나 '마음의 소식'(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을 알리고 싶은 충동을 가끔 받곤 한다. 잊혀가던 추억이나 행수, 즐기던 명시나 잠언, 뜨락의 한 포기 풀이나 꽃, 두동실 때 있는 달, 흘러가는 시간, 송구영신 등 극히 예사로운 일들이 이러한 충동의 계기가 되는 것이 또한 옥살이다. 그래서 종종 편지를 쓰게 되는데, 쓰게 되면 심란하기도 하지만 후련하기도 하다. 이것이 아마 옥중편지만의 속성이 듯싶다."

다음은 편지의 일절이다. "올해는 정족년 '소의 해'요. 한때 황황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이 '소의 해'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셨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다(牛歩千里), 즉 꾸준한 노력으로 성과를 이룬다는 이 성어를 반복하고 음미하면서, 우리는 이제 충격과 비탄에서의 허둥거림을 그만두고 황소처럼 묵직하고 침착하게 앞만 내다보면서 나아가야 할 것이오. 하나님을 새로이 출발하고 새로이 쌓아간다는 심정과 자세로 과육이나 성급함을 버리고 천리길에 들어선 황소처럼 쉼없이, 오로지 앞을 향해 한걸음 한걸음 나아야 할 것이오. 그럴 때 우리의 믿음, 우리의 의지, 우리의 희망, 우리의 모든 것이 참말로 '소가 밟아도 깨지지 않게(牛踏不破) 굳건히 다져지고 끗끗해질 것이오."(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다'에서) <언론인>

※ 본문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대선에 '지방분권' 제도화 반드시 이뤄내야

제18대 대선을 앞두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학계, 시민단체 등이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목소리를 높이며 조직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지방 출대와 수도권 중심정책으로 일관해온 MB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각종 지방정책이 선거공약으로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오는 11일 대구에서 총회를 열고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대선공약으로 채택해줄 것을 주요 정당 및 대선 후보들에게 요구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또 지방 세원 확대, 교부세 제도 개선, 국고보조 사업의 포괄보조 확대 등 지방재정 확충,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등도 건의할 방침이다.

협의회는 이러한 공약이 실현될 수 있도록 시·도지사와 국회의원,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꾸려진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발족할 예정이다. 9일에는 학회와 대선을 앞두고 시·도지사들이 지방분권을 정책에 반영, 해결하려고 나선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지방정부의 자율성·책임성을 높여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선진국 진입을 위한 필수요건임을 모든 후보들은 명심. 이의 제도화를 위해 전향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광주비엔날레 한달 부정적 평가도 많다니

개막 한 달을 맞은 광주비엔날레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내용적으로는 아시아 대표미술제에 걸맞다는 호평 속에 외적으론 관람객 저조와 미숙한 관람문화 등 부정적인 평가도 적지 않다.

영국 가디언과 독일 알케마이너 차이퉁지 등 해외 언론은 비롯한 국내외 미술전문가들은 "아시아 대표 미술제로 확고한 위상을 수립했다"는 평가와 함께 "눈길을 사로잡는 작품이 없다"는 등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 특히 광주 전역을 전시장으로 활용하고 시민 참여 폭을 넓힌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저조한 관람객과 수준 이하의 관람문화 등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비엔날레 재단이 7일 내놓은 유료 관람객 수는 7만4532명에 불과하다. 지난 2010년 같은 기간 관람객 12만5667명의 절반 수준이고, 2008년 14만3038명에도 훨씬 못 미친다. 남은 한 달 동안 유료 관람객 30만명

에 도달할 지 의문이다.

후진적 관람 문화도 여전하다. 관람객들이 작품을 파손하면서 수리 중인 전시물들이 많고, 그로 인해 작품 감상마저 어렵다고 한다. 오죽했으면 작품 앞에 보호 헌스를 치고 관람토록 하는 미술제는 "광주비엔날레가 유일하다"는 비아냥까지 나오겠는가.

올해로 9회를 맞은 광주비엔날레는 단순한 미술이벤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국내외 대표 미술제다. 지난 2002년 광주 전역을 전시장으로 활용하고 시민 참여 폭을 넓힌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제 광주비엔날레가 세계의 미술제로 거듭나기 위해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철저한 준비, 출품작의 예술성도 중요하지만 국내외 관람객의 대거 유치와 수준 높은 관람 문화 등 적잖은 보완이 필요하다. 남은 한 달에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세심한 관람객 맞이에 총력을 기울이길 바란다.

無等鼓

요즘 '힐링'(healing)이 대세다. 힐링은 '치유하다', '낫다'라는 뜻의 힐(heal)을 동명사화 한 단어다. 애초 한 방송사의 '힐링캠프'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통용되기 시작했다. 세파에 치들고, 상처 입은 영혼을 치유해 새 삶을 살게해 준다는 의미로 널리 퍼졌다.

프로그램에서는 스타들의 화려함과 그들이 애인 있는 스트레스도 가감 없이 보여주었다. 특히 주요 대선 주자로 부상한 박근혜·문재인·안철수 후보도 힐링캠프를 통해 대중과 가까워졌다. 부모를 흉터에 잊어야 했던 박근혜의 아픔, 공수부대 출신 문재인의 강단, '샌님' 안철수의 진면목도 힐링캠프가 속속들이 전해 주었다.

오늘은 사는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가 커서였을까? 힐링은 급속도로 일반에 파고들었다. 앞서 '힐링'이 사람들의 마음을 끌었지만 최근 한 차원 더 높은 힐링이 그 자리에 대신하고 있다.

산업도 예외가 아니다. 한때 웰빙으로 돈의 흐름이 끌렸지만 이제는 힐링이다. 출판, 관광, 방송은 물론이고 공공부문도 '힐링행정'을 들고 나을 정도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마음의 평온을 되찾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요즘 출판과 방송계의 큰 흐름이다.

대규모 시설에서 즐겁게 노는 것보다 휴식을 취하며 건강을 쌓는 쪽으로 관광도 바뀌고 있다. 이에 뒤집어라자 치단체에서는 힐링관광상품 개발에 열을 올린다.

힐링의 메시지는 상처받은 마음이 치유돼야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대선 주자는 응어리진 사람들의 영혼을 달래주는 '힐링 행보'에 주력하고 있다. 상처받은 소외된 사람들의 마음을 진심으로 어루만져주면 자연스럽게 표가 따라온다는 이치 때문이다.

힐링은 궁극적으로 마음을 치유하는 것이다. 혹시 주변에 나의 힐링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돌아보는 것도 좋은 계절을 헛되이 보내지 않는 마음을 씀씀이다.

/박경기 사회부장 unipark@kwangju.co.kr



추억을 부르는 추석영화

박행순

네팔에서 온 편지 (26)



내가 영화를 관람하는 것은 손쉽게 네팔 문화를 이해하는 방편이기도 하더니와 좀 심심하기도 해서 영화관에 가고 싶었다. 그러나 영화관이 쉽게 눈에 띄지 않을뿐더러 그간 여러 차례 교민이나 네팔 친구들에게 영화 보러 가자고 해도 따라나서는 사람이 없었다. 영화를 다운받으라거나 CD를 빌려주겠다고 했다. 뭐 하려 귀찮게 돈 들여 영화관에 찾을까 가느다란 눈치이다. 다른 일들은 잘 도와주는데 내 주위 사람들은 도통 영화관과는 달리 사는 사람들을 같아서 자꾸 조르기도 민망하다. 나도 어느 틈엔가 슬그머니 네팔 영화관에 흥미를 잃었다.

제목을 기독교 예술의 주제인 '페에타'로 정함으로써 이보다 훨씬 더 긍정하고 친절하게 입장을 나온 영화관은 주로 젊은이들이 팝콘을 먹고, 콜리를 훑으면서 영화를 관람하는 데일트 장소로 변한지 오래이다. 나인 드 사람들은 가끔은 끝나듯 찾았던 어렵고 불청객 같은 느낌이 들어서 가기 싫었다.

지난 여름 한국 방문 중에 큰 맘 먹고 '도둑들'과 '페에타'를 보려 영화관 출입을 했다.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국제 도당들의 도둑질을 보고나서 "재미있었다."고 하면 어쩐지 도둑질을 용인하는 것도 같고 부추기는 것도 같아서 고약한 느낌이 든다. 하지만 '도둑들'은 흥행에 성공한 영화라고 했고 재미있게 보았다.

끔찍한 장면들로 시작되는 '페에타'는 가슴을 어리게 하는 아픈 영화로 기억에 남았다. 김기덕 감독은 채우자들이 당하는 끔찍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과 모성의 슬픔을 관객들에게 생생하게 전달하였다. 그는 영화

제목을 기독교 예술의 주제인 '페에타'로 정함으로써 이보다 훨씬 더 긍정하고 친절하게 입장을 나온 영화관은 주로 젊은이들이 팝콘을 먹고, 콜리를 훑으면서 영화를 관람하는 데일트 장소로 변한지 오래이다. 나인 드 사람들은 가끔은 끝나듯 찾았던 어렵고 불청객 같은 느낌이 들어서 가기 싫었다.

영화관에서 한국 영화를 볼 수 있으리라고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다. 그런데 추석 바로 다음주에 '제 8회 한국영화제'를 러시아 문화센터에서 개최한다고 대사관에서 안내 메일을 보내주었다. 한 주 동안에 영화 네 편을 두세 번씩 상영한다고 했다. 첨부된 팝플러스는 세련되고 깔끔한 디자인에 영어로 영화개요가 설명되어 있고 김일수 대사의 인사말도 들어있다. 네팔인과 한국인들은 서로 통하는 부분이 많은데 영화를 통하여 한국인과 한국사회를 느껴보라고 권하였다. 그것이 바로 내가 네팔 영화를 보고 싶은 이유였다.

첫날 오전에 '페이스 메이커'를 보고 극장에서 점심을 먹고 오후에는 '파파'를 보았다. 두 영화 모두 가족 사랑을 느끼게 하고 진한 감동을 불러일으켜서 웃기도 하고 울

기도 했다. 밖으로 나올 때는 늦은 햇살 때 문이 아니라 붉어진 눈을 감추려고 선글라스를 끼었다. 둘째 날 오전에는 '체포 왕'을 보고 오후에는 '오늘'을 보았다.

'오늘'은 살인자에 대한 용서를 다루는 부분에서 2007년 개봉된 이창동 감독의 '밀양'을 생각나게 했다. 가해자의 자기반성을 전제로 하지 않는 피해자의 일방적 용서는 두 영화에서 다회로 나타났다. 심자기에게서 운명 직전에 예수 역시 가해자가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는데 저자들은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빌었다. '오늘'과 '밀양'은 기독교의 본질을 과고드는 영화라는 생각을 했다.

나 어렸을 적에는 영화관이 아니라 '극장'이라고 불렸다. 추석에 극장에 가는 것은 송편 먹는 것만큼이나 당연했다. 극장의 스크린은 지금 같은 초대형이 아니었고 의자가 별로 안락하지도 않았다. 러시아 문화센터의 영화관은 극장에 온 것 같은 정감을 불러일으켰다. 추석에 때맞춰서 한국영화를 네 편이나 보고나니 여기가 이국땅이라는 생각은 사라지고 어릴 적 극장의 추억이 되살아난다.

<파티의 대 객원 교수·전남대 명예교수>

고 있다는 답변은 2009년 88.1%에서 2012년 63%로 25.1% 포인트나 대폭 감소했다.

국경일이기는 하지만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 의미를 깊이 있게 새기지 못하고, 한글날은 언제인지도 모른 채 잊고 지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넷째, 경제 논리에 의해 공휴일 지정이 취소되었다지만, 이는 쉬는 날이 늘어나게 되면 오히려 다양한 여가·문화 활동의 활성화로 인한 내수 진작과 생산성 확대에 기여하는 측면이 무시된 결과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비록 예로 프랑스나 미국도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휴일 확대 정책을 실시해서 실효를 거뒀고, 일본도 2003년 민간 소비 촉진을 위해 '해피 먼데이'라는 공휴일 제도를 도입하여 일정 정도 성과를 거둔 사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21세기는 문화의 시대이다. 한글은 우리 문화의 독창성과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다. 문화 민족으로서의 자긍심과 고위와 더불어, 앞으로 세계 문화를 선도해나가기 위한 민족의 문화적 저력과 잠재력을 일깨우기 위해서도 한글날 재지정은 시급한 과제이다. 이에 한글날 공휴일 재지정을 위한 당위성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자 한다.

첫째, 언어 즉 말과 글은 한 민족을 살리고 지키는 힘의 원천이자 생명이다. 어느 민족도 그 민족 고유의 언어를 포기하고서 정체성을 유지했던 적이 없다. 과거 우리는 말

안 된다.

프리미엄 분유가 나쁘다거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다. 광고와 홍보에 나오는 수준 만큼 되지 않으니 프리미엄 제품의 가격을 그 수준에 맞게 낮춰야 하는 것 아닌가.

현재 소위 프리미엄이라는 글자가 붙어서 아주 비싸게 팔리는 제품은 분유뿐만 아니라 우유와 험 등 여러 종류가 많다.

이런 제품들 모두 성분 분석을 통해 적정한 가격인지 공식적으로 따져서 발표하고, 소비자들의 피해가 없게끔 해줬으면 좋겠다.

▲김경자·순천시 인동동

품질 차이 별로 없는 프리미엄 제품 가격 낮춰야

아이에게 분유를 먹이는 엄마들은 누구나 공감하는 일이겠지만 내 아기에게 영양 많고 몸에 좋은 걸 먹이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갖는 생각일 것이다. 그런 부모들의 마음을 풀고 생산돼서 나온 분유가 바로 프리미엄 분유다. 이를부터 별세 소비자들의 마음을 확끌고 하는 프리미엄이라는 말에 소비자들은 돈이 좀 더들더라도 가게 마련이다. 필자도 아기를 키우면서 이 프리미엄 분

유를 한동안 사서 먹었다. 그런데 얼마 전 한 소비자단체가 프리미엄 분유를 조사한 결과가 발표되었는데 그 내용인즉 품질은 차이 없고 값은 비싸다고 나왔다. 이는 결코 프리미엄 분유 가격에 거품이 끼어 있다는 말 아닌가. 현재 대형 마트 분유 코너에 가면 몸에 좋은 성분이 들어 있다는 프리미엄 제품들이 넘쳐난다. 아기를 생각하면 2배 정도 비싼

광주日報

| | | |
| --- | --- | --- |
|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 논설주간 申港樂 | 편집국장 曹庚 |